

창세기 순례 열다섯째 날 여정

2016.08.31
순례 길잡이
정원진 목사

1. 창세기 25-27장 길잡이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Upanisad)에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은 다름 아닌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고, 그의 의지는 곧 그의 행위이며, 그의 행위는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라는 말이 야곱의 경우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간 사람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의 강한 집념이, 나쁘게 얘기하면 세속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그의 생을 조각했습니다. 야곱의 생이 끈질긴 집념으로 점철된 생이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에서 드러납니다. 장자 상속권에 대한 집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집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집념... 실로 야곱의 삶은 계속되는 집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집념 때문에 야곱은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비 신앙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모습을 좋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나쁘게 보면 불의한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작위적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허기진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들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치사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내

고, 교묘한 방법으로 장인과 계약을 맺어 재산을 증식시키고, 귀향 길에 형 에서를 대면할 시간이 되자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압복강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로 거듭나고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필요에 따라 머리를 굴리고 잔피를 부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즉, 야곱의 모습은 가감 없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 살기에는 너무나 큰 믿음을 가졌던 성조라면, 야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성조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우리와 통하는 야곱은, 다른 어떤 성조보다도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허물과 한계를 지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은 그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았다 해도 그 혼자만의 생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은 하나님이 함께 한 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현세적 집념을 꺾아 내리지 않으시면서, 즉 일방적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지지 않으시면서 그의 집념 안에서 서서히 그 무엇인가를 조각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적 의지와 현세적 집념을 갖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옛 사람의 길과 새사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참 신앙인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지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서서히 드러내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영혼의 거울로 대하면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2. 창세기 25-27장 말씀 순례

(1)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25:23)

성서는 자주 형제간의 갈등·시기·질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보이는 다툼은 가장 근본적인 형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어머니의 양수, 빛이 없는 어두운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발길질을 해대면서 싸울 만큼 숙명적인 형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들려준 신탁 내용을 보노라면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영원으로부터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 민족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개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예정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이란 인간 개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영원으로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 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구분

지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인간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 선택은 어느 하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듯이 에서도 돌보십니다. 야곱처럼 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같은 논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도 선택받은 이삭처럼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고 구원 의지는 보편적이기에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에 따르면 멸망할 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 구원받을 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배타적으로 그 사람만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편애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역사 안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하나의 표본으로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자는 구원의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 너의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27:35)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이어지는 27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이삭과 맏아들 에서를 감쪽같이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속임수는 정당치 못하다”는 윤리적 잣대로 이 이야기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독한 가부장제(家父長制) 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여자와 아이는 남자 어른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무게에 견주어 볼 때 티끌처럼 가벼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는 비록 아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해도 집안의 남종, 여종, 소, 나귀와 같은 ‘재산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례가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는 ‘여자’인 까닭에 소나 나귀와 함께 남자의 ‘소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자권’(長子權)으로 나타납니다. 장자권이란 맏아들로 태어난 이가 가부장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는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한은 철저히 배타적으로 장남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열외였고, 남자도 맏이로 태어나지 않으면 권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부장제가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일단 남자로 태어나라. 남자로 태어나되 맏이로 태어날 일이다. 아니면 평생 소외된 자로서 후회할 것이다.” 실상이 그러했기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어야 했는지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먼저 나가기 위해서, 즉 장자권을 손에 거머쥐고 태어나기 위해서, 형제는 태 안에서부터 그렇게 다투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편

에는 가장(家長)인 아버지와 맏아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력을 전 두 사람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고, 맞은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권리를 빼앗긴 두 사람이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그들에게는 이른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관습으로나 제도로나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철옹성 앞에 힘없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리브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야콥은 둘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권리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진영의 갈등과 투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약자인 어머니와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승리도 아주 일방적인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편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성경의 믿음이 여기에서도 실현된 것입니다.

주도면밀한 속임수, 이것이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맏아들을 이긴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집안의 모든 권리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어야만 하는 터무니없는 관습과 제도에 대하여, 윤리는 무슨 말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가 아니라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먼 이삭이 상징하는 굳어진 가부장제는 스스로 자기 발목을 걸었습니다. 이삭은 야콥에게 속아서 온갖 축복을 몽땅 둘째 아들한테 쏟아 부었습니다. 한번 뺏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거두어들이거나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모두 도둑맞은 에서에게 남은 것은 저주의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창 27:39).

축복이란 축복은 모조리 만아들한테만 내려주는 이 눈먼 가부장제의 결말을 보십시오. 어쩌면 단 한 가지 축복도 다른 아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일수록 독차지는 안된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독(獨)차지는 독(毒)차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승리로 가부장제는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형 대신 아우가 가장이 되었다고 해서 가부장제가 청산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는 그대로 남고 지배자의 얼굴만 바뀌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4)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27:36)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장자권은 만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집안의 부와 재물을 물려받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집안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12:2-3). 이 축복을 야곱이 훔쳐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은 현세적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점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당사자이지

만, 그가 물질적으로 비참하게 살았다는 보도는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지대에 정착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나아가 예서는 야곱보다 더 많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400명의 주장한 장수들이 그의 발아래 있었고, 에돔 왕국이 그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아냈지만 예서와는 판이하게 고통스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인생의 황금시절을 무보수로 착취당하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귀향길에 만난 어떤 남자(하나님)와 씨름해서 절름발이가 되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거리에서 물어야 했습니다. 또 난폭하고 무분별한 자식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노년기에는 혹독한 흉년으로 인해 어린 손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것은, 그가 받은 축복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미래 후손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축복을 상속받은 야곱은 이 축복의 올바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성숙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사업의 올바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일련의 시험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슬한 시련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시련과 인내로 가득 찬 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단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순례**

3. 속제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를 꼼꼼히 읽어 오십시오.